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미니 프로젝트

기획 및 분석: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취재 및 사진/ 비주얼 맵핑: 김세은



테마명:

-제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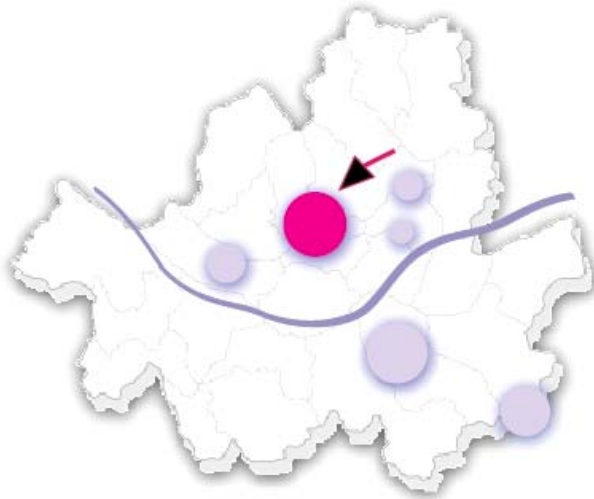
Kitfetish street

키페티시 스트리트



Kitfetish street

삼청동 Samchung dong



기획의도

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 진행된 미니 프로젝트는 삼청동, 가로수길, 청담동, 정자동 등 도심지 속 특정 거리문화가 리딩 (leading) 되는 곳만을 포커스 한다. 제3의 문화로 인정받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분석하고 동시대적 어센티시티 (authenticity)와 스타일 등을 정립하여 거리에 숨어있는 수많은 트렌디 (trendy) 요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구역마다 특정 아웃도어 라이프와 컬러를 분석하여 트렌드 키워드를 도출한다.

3 focus in Samchung dong

메인 테마 : Kitfetish street

서브테마-1: Vintage-sign

서브테마-2: Street cra-ptic

Kitfetish street

Kitsch (키치) + fetish (페티시)의 합성어로 키치는 미술장르의 하나로 사전적으로 저속한 예술품이라는 의미, 세계각국 베흐시장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물건들을 모아 놓은 듯한 무드와 몰신, 주물을 뜻하는 동물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의미인 페티시를 절충한 합성어로 신문화 발생지를 주목하고 최근 디자이너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리(street)의 트렌드 동향을 포커스 한다.

Kitfetish street

<Samchung dong>



#EF3834



#ACBF66



#59AEE1



#EFD66A



#121B30



#35252C



#3EBFB9

사진촬영 및 비주얼 맵핑: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칼라도출: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삼청동거리의 키페티시 (kitfetish)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현존하는 지역 삼청동은 최근 문화적인 거리로 트렌드 세터 (trend setter) 들에게 주목되고 있다. 삼청동 골목을 따라 올라가는 길마다 새로운 재미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전 기와집 그대로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복원하거나 리뉴얼 (renewal) 한 모습들이 대부분의 건물 모습이다. 인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롭게 재 채색한(re-coloring) 컬러들이 눈에 띈다.

● Kitfetish Color landscape :

컬러계열은 orange, green, blue 계열 등의 원색에 가까운 컬러 톤 들로 재 채색 되었으며, 컬러 대비도 orange와 green계열의 보색에 가까운 대비로 과감함이 엿보인다. 또한, 그 위에 지붕에 얹은 기왓장은 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규제로 인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규정이 많이 완화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삼청동의 건물들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통적인 형태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살몬(salmon) 오렌지와 소프트한 그린계열의 칼라대비와 단독 컬러인 블루와 그린계열은 거리에서의 문화적 컬러로 표현된다.

● Outdoor look:

쇼윈도 (show window)의 형태도 벽돌집 벽면의 한곳을 파내어 벽 속에 걸린 액자와 같이 소품이나 의류를 전시하고 있다. 유리 위에는 글자나 픽토(Picto)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프린팅 되거나 손으로 직접그린 것들이 새겨져 있으며, 기존의 전시된 제품과 독특한 매치로 디스플레이 효과를 부가 시키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로 뽑을 수 있다. 또한, 간판이나 상징물을 보면 고양이, 강아지, 물고기 등 마치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과 같은 동물형상들이 눈에 띈다. 조형물이나 프린팅으로 표현되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 오는 부분이다. 독특한 shop들 앞에는 공식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주인의 직접 타고 왔을 법한 베스파 (Vespa) 또는 다양한 종류의 스타일리시 (stylish) 한 자전거들이 문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베스파 (Vespa)는 1940년대부터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쿠터로 오래 전부터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저탄소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무공해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독특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삼청동 거리 속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키치적인 요소와 페티시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 키워드 키페티시(kitfetish)로 정립한다.

사진촬영 및 비주얼 맵핑: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칼라도출: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Kitfetish street
<Samchung dong>

Vintage-Sign



#3669B3



#D57297



#39A784



D8B234



#193631



BC2034



4D3D28



24171A

● 빈티지 사인 (Vintage-sign)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새로운 요소들이 발견되는 거리 삼청동에서는 다른 장소와는 다른 독특한 간판들이 눈에 띈다. 어떤 시대 어느 장소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추측이 되지 않은 것들이 거리 곳곳에 다양하게 자유분방하게 그 사인을 보내 길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사인간판이 예쁜 곳, 바로 빈티지 사인은 거리를 문화적 요소로 가득 차게 한다. 벽돌 위에 색을 칠한 부분이 벗겨서 바랜듯한 색감, 언제 그렸는지 시간을 알 수 없는 약도 그림은 벽화를 연상케 한다. 특별한 약도가 없기에 주변 위치를 알려 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그려 놓은 듯한 그림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려 놓은 낙서화 같지만 거기에 표기된 위치 표시는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인의 요소로 보여진다.

● Vintage-sign Color landscape :

빈티지 크로메틱 (vintage chromatic) 컬러의 플레이와 다크 (dark)한 벽돌이나 우드에서 오는 색감의 매치로 키치스러움을 부가 시킨다.

● 신발이 걸어 다니기 위한 수단이 아닌 간판의 중요한 디스플레이 요소로 표현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목재 프레임에 실제 여성용 하이힐을 매달아 상징적인 면을 부각 시키고 있다. 단순히 구두를 판매하는 shop의 차원을 넘어 수공예 적인 느낌의 수제화 판매 shop,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희귀한 구두들이 준비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이 어필되고 있다. 70년대 어릴 적 먹었던 아이스크림은 마치 분홍과 하늘색의 맛이 아니었을까. 골목 안 “아이스크림” 표시는 오래된 합판에 분홍색으로 채색되고 글자는 알아 보기 쉽게 손으로 쓴 정감 어린 하늘색 글자체가 철봉을 잘라 놓은 듯한 오래된 철골 문에 아무렇게나 매달려 있는 모습은 충분히 어린 시절 속에서 막 튀어 나온듯한 키치적인 강한 장면을 연출한다. 꽃집의 사인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나무 위에 아무렇게나 쓰여진 커다란 글자는 오랜 시절부터 그곳을 지키고 있을 법한 모습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개구리모양의 오래된 골동품과 같은 장식품이 안내하는 shop의 사인은 고양이 그림과 주술사가 막 걸어 놓은 듯한 목걸이 장식이 페티시적 매력으로 다가 온다.

● Shop 내부는 수공예로 만들어진 동물 형상과 각종 독특한 물건들이 준비해 있다.

다양한 시대와 국적을 갖은 느낌의 제품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인 만큼이나 독특하다.삼청동의 간판(sign)들은 각자 개성에 맞추어 다양한 컬러를 지니고 있다. 컬러사용에 있어 구매 받지 않으며, 과감한 컬러 대비는 키치스러움과 독창스러움을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새롭고 신선함을 주며, 형식에 구매 받지 않는 장식은 충분히 삼청동만의 빈티지 사인(vintage-sign)으로 주목 받을 만 하다.

Kitfetish street
<Samchung dong>

Street cra-ptic



사진촬영 및 비주얼 맵핑: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칼라도출: 이 순영 (트렌드 전문가)

● 스트리트 크라-픽 (Street cra-p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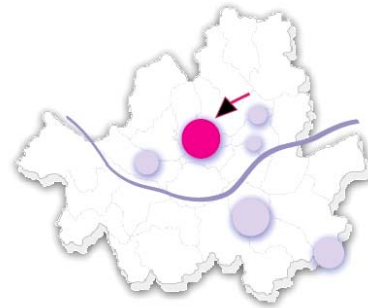
벽면에 그려진 그림들은 단지 낙서화가 아닌 새로운 재미요소와 광고효과로 삼청동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로 반듯하게 그려지거나 쓰여진 글자보다는 자유롭게 손으로 그려지고 쓰여진 느낌의 그래픽들이 삼청동 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 테마에서 말하는 ‘스트리트 크라-픽(Street cra-ptic)’의 ‘cra-ptic’은 ‘craft + Graphic’의 합성어로 최근 거리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든 손으로 그린 그래픽을 통칭하는 키워드로 제안하고 있다.

크라-픽은 생각을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벽면에 붙은 현수막 속 그림은 그곳에 오늘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패션스타일, 문화, 생각 까지도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빛 바랜듯한 색감의 그림 속 블루와 핑크의 컬러는 그들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주며, 그 안에 적혀있는 키워드 ‘Re-creatism’, ‘New emotion’, ‘New style’은 기존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자유롭게 접근, 새로운 창의성에 대한 개념, 새로운 감성, 새로운 스타일을 컬러나 그림 속 내용으로 짐작 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삼 옆 벽면에 거대하게 그려진 슈즈는 시공간을 뛰어 넘어 4차원의 키치적인 인상을 준다. 마치 다른 공간에서 만들어져 걸려 있는 그림은 단지 슈즈를 판매하는 삼의 광고효과로 그려졌을지 모르지만 슈즈를 단순화하여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크게 그려졌다는 부분에서 유니크 (unique) 한 형상으로 그자리 그곳의 공간을 색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골목길에만 크라-픽(cra-ptic)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부 안 동선을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크라-픽이 숨어 있기도 하다. 작은 공간을 통해 올라간 하늘정원에 있는 고양이는 마치, 그 정원을 지키는 듯 벽면에 자리잡고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공간 속에 숨어 있던 크라-픽은 무언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으며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

● Steet cra-ptic Color landscape

소프트한 바이올렛, 옐로우 계열의 중재, 블루나 레드 계열로 포인트 칼라로 표현되며, 다크 네이비 (dark navy) 의 그래픽 라인이 적절히 표현되어 생동감을 준다.



로컬 칼라 파노라마

Local color panorama

지역: 삼청동

키워드: **Kitfetish street**

Kitfetish street



#EF3834



#ACBF66



#59AEE1



#EFD6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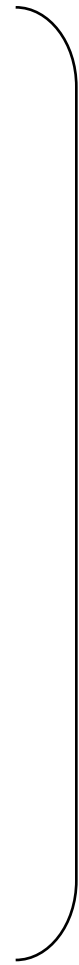
#121B30



#35252C



#3EBFB9



Street cre-ptic



#2F4F9F



#9D8BC2



#B3324F



#1F2935



#F0CF68

Vintage-sign



#366983



#D57297



#39A784



D8B234



#193631



BC2034



4D3D28



24171A